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웹진『만남』오픈!

웹진『만남』이 6월중 오픈한다. 1973년 3월 창간해서 2020년 6월호까지 통권 557호를 발간한『만남』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소식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PC와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웹진『만남』의 오픈으로 소통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6월 중순부터 안드로이드계열 스마트폰(삼성, LG)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영락만남'을 검색하면 된다. 웹진『만남』에서는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웹진『만남』은 교회와 성도를 잇는 소통의 통로로 유익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인터넷주소로(www.youngnakmn.net) 접속하면 된다. (관련기사 58면)

사진 류정현 집사

교회표어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13~14)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나라 사랑, 특권입니다 김운성

- 특별기획 04 6·25전쟁과 한국 교회 임희국
08 복음이 통일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임현수
11 ‘세계인의 성자’ 손양원 목사 전정희
14 머리에 봉대 감고 세상을 ‘앓던’ 조만식 선생 김형석
16 강소국 이스라엘이 주는 교훈 김학주
18 6월, 지금 우리를 생각한다 홍성표

영락칼럼 21 위기의 시대,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강승훈
24 그 이름은 아즈위! 차인태

땅끝까지 이르러 26 복음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 홍영남
28 하나원 태동의 디딤돌 영락교회 김영미
31 뉴코리아국제학교 들여다보기 이정만

다음 세대 34 하나님의 깊은 터치 고여욱
36 3대가 드리는 기도 김하준, 김정훈, 한혜경

영락의 울타리 38 거룩한 부담감 김혜욱
40 낯선 땅을 걷는 난민들과 함께 걸으며 최성은
42 마스크 너머 눈물어린 예배 김명철
43 마음이 보이는 ‘인연’ 이세경
44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 유지하기 박일환

야곱의 우물가 46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게 일하신다 임종환
48 영락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오정분

문화광장 50 엎드려야 한다 김태균
52 뮤지컬로 문화선교합니다 유혜정
55 영락화랑 작가노트 / 6월 목회력

교회소식 56 제198회 서울노회 외
60 편집장 레터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70년 전 이 땅에 전쟁이 벌벌했던 그날은 주일이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나라와 신앙을 지켰다. 사진은 1950년 6월 25일에 발행된 본 교회 주보.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나라 사랑, 특권입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1938년에 미국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사회자가 강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분도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이름, 태어난 날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처럼 그날의 강사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부모도, 출생일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리는 13살 되던 해 모세스 카버의 집에 팔려갔는데, 카버 씨는 메리를 돈을 주고 데려온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메리는 자일스와 결혼해 자녀를 낳았으나 두 아이는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 후 아기가 다시 태어났으나, 자일스는 작업 중에 통나무에 깔려 죽

고, 메리는 폭도들에게 끌려가 어디론가 팔려갔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운 사람은 모세스 카버와 아내 수잔이었습니다. 카버라는 이름도 이런 연유로 생긴 것입니다. 그 후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받은 차별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배우고 연구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해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농업학자가 되었고, 특별히 땅콩 박사로 불릴 정도로 콩에 관한 연구에 몰입했으며, 목화 농사로 피폐해진 남부의 농토를 땅콩 농사를 통해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그는 미국 의회에서 강의할 때에도 입을 옷이 변변치 않을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그는 영국왕립예술협회원이 되었고, 1990년에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미국을 사랑했습니다. 1942년이 저물어 갈 무렵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

스가 지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그는 학원장 페터슨 박사에게 한 뭉치의 미합중국 국채를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국채를 우리 재단에 넣어주세요. 내가 국채를 산 이유는 피부색은 나라를 사랑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듬해 1943년 1월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가 사랑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을 노예로 부린 나라이며, 부모를 비참하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카버 박사 자신도 강사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식사조차 대접받지 못해 짖는다던지, 숙소를 구하지 못해 여러 시간을 헤맨다던지, 노골적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그가 원한을 품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위해 국채를 샀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땀 흘려 노력해 얻은 과학적 지식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개인과 기업에 아낌없이 제공했으며 흑인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카버 박사에게 나라 사랑은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었습니다.

카버 박사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애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역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마리아 왓킨스가 준 낡은 성경을 평생 읽었으며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그 모든 지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요, 학자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했으며 그것으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6월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올해는 그 70주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나라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정치와 사회 현상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나라 사랑이라기보다 종종 이기적 욕심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수고를 통해 일상의 애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론몰이나 이념대결이나 특정 정치 흐름에 경도되는 애국에서 탈피함으로써 나라를 사랑하다가 미워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 먼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소임에 충실히 그 열매로 사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작아 보이지만 위대하고, 조용하지만 큰 혁명을 가져오는 애국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은 요란한 구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한 시민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생태계는 늘 변할 것입니다. 좋아지거나 악화될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맞게 갈 때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나 파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배는 늘 그 위에 떠서 목적지로 항해하듯이 우리의 애국도 그려해야 하겠습니다. 복음통일의 역량을 키워가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더욱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만남**

6·25전쟁과 한국 교회



1950년 10월 6·25전쟁으로 주변이 전부 파괴되고 흙로 서 있는 영락교회 전경

1950년 6월 25일(주일) '6·25'이라 일컫는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대량 파괴가 발생했다. 무려 400만~50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死傷者), 또 수많은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이 속출했다. 전쟁통에 생이별한 이산가족은 전쟁 이후에 민족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과 함께 고착된 한반도의 분단은 국민 의식 속으로 내면화되었다.

6·25전쟁은 장로교회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전쟁 이전에는 북한지역의 교회가(특히 평안도와 황해도가) 장로교회를 주도했는데, 전쟁 기간에 수많은 교인이 월남해 남한에서 교회를 창립하고 재건했다. 장로교회는 전후(戰後) 사회재건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가운데서 학교 설립을 통한 인재양성과 산업전도를 통한 경제건설에 대한 기여가 주목할 만하다.

1. 전쟁 중 한경직 목사의 사회봉사

6·25 전쟁 발발 직후, 한경직 목사와 여러 교회 지도자

들이 서울 예수교서회 사무실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국난(國難)의 상황에 피난민을 돋기 위한 '대한기독교구제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는 바람에 이 단체는 첫걸음을 떼보지도 못한 채 해산되었다. 서울을 겨우 빠져나온 한경직은 대전으로 피난을 갔다. 그는 7월 3일 여려 목회자와 대전제일교회에서 모였다. 여기에서 '대한기독교구국회'가 조직되었고 한경직이 회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곧바로 대전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고 또 구호사업과 대중 전도에 힘썼다. 그동안에 전세는 더욱더 북한군에게 밀렸다. 이에 이 단체는 대구로 옮겨갔고 대구 기독교청년연합회(YMCA)에서 사무를 보았다.

9월에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탈환했다. 이때 부산에서 서울로 온 한경직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후암동 보린원이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낸 아이들이 그를 반갑게 마중 나왔다. 이 아이들을 덥석 껴안은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¹ 계속 북진하는 유엔군이 10월

22일 평양을 점령했다. 이틀 뒤인 24일부터 여러 미국 선교사들이 이곳에 속속 도착했다. 한국인 목사들(윤하영, 이인식, 김양선, 유호준 등)도 도착했다. 한경직은 대한기독교구국회 일원으로 그곳에 갔다. 29일 주일 오후 2시 서문밖교회에서 대중 집회가 열렸다. 예배당 안에는 밭 들여놓을 공간이 없이 짹 차 있었고, 예배당 밖에는 실내보다 훨씬 더 많은 교인이 껑충껑충 발돋움으로 창문을 통해 강단에 집중했다. 김영준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고 한경직 목사가 이사야서 60장 1절로 설교를 했다. 이어서 온 회중이 다 함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송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중국이 개입했다. 11월 하순부터 평양 교인들이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대거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른바 ‘1·4후퇴’가 시작되었다. 이때 서울에서는 영락교회 교인 3분의 2가 부산으로 피난했다. 교인들은 한경직의 인도로 전쟁미망인(22명)과 고아(82명)를 돌보는 ‘다비다모자원’을 설립했다. 월요일마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군 병원에서 침대를 정리하고 옷을 세탁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상이군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도 운영했다. 그해 (1951) 9월 광복동교회에서 총회를 소집한 ‘이북기독교 신도대표회’는 한경직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했고, 이 신도 대표회는 11월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피난 생활을 하는 월남 피난민 교인들을 찾아 위로 방문했다.

미국 개신교 부흥사 밥 피어스(Bob Pierce) 목사가 1951년 부산에 방문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목도한 그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the man of broken heart)이 되어 이전에 함께 일해 본 한경직에게 “무언가 한국을 돋고 싶은데 오늘 이 상황에서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



1952년 영락경로원 개원 당시의 모습

겠느냐?”라고 문의했다.² 한경직은 이에 “교역자 중심의 특별 부흥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송도 부흥집회에 약 400명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그 이후, 1952년 12월 부산에서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가 대중집회를 열었다. 첫 한국방문이었다. 이때에도 한경직이 통역을 비롯해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듬해 봄(5월 18일) 한경직은 빌리 그레이엄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약 40일 동안 각처에서 설교하고 전쟁 중인 한국의 실상을 소개했다.

전쟁 중에도 봉사(교육) 사역에 대한 한경직의 열정은 대단히 뜨거웠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 부모 잊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을 모아야 간에 기독교 정신으로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자 했다. 김찬호가 이미 1951년 8월경부터 서울에서 성경구락부를 열어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는 그 이듬해(1952) 5월 백상용과 함께 한경직을 찾아가서 성경구락부 운영에 관해 의논했다. 한경직은 영락교회 구내에서 야간 성경구락부 중등부 과정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 성경구락부가 영락학원(영락중·고, 영락여상)으로 발전했다. 그해 3월 1일 북한

1 한경직, 『한경직목사설교전집』 제4권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09), 171.

2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밥 피어스의 전도 팀이 대구, 부산, 서울, 광주에서 전도집회를 열었다. 서울에서는 남대문교회에서 10일간 전도집회를 가졌는데 이때 한경직이 그의 설교를 통역했다. 전쟁 중이던 9월 22일 밥 피어스가 주도한 월드비전(World Vision, 구 선명회)의 창립에 한경직은 한국인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관련기사 57면)



영락학원의 전신인 성경구락부 초창기 모습

정주에 있었던 오산학교의 재건을 위한 모임에서 한경직은 모교인 이 학교의 재건을 위한 발기인이 되었고 이어서 상임위원으로 참여했다. 같은 시기에,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함으로써 폐교당한 평양 송실대학을 재건하고자 서울에서 '송실재건획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기에도 참석한 한경직은 송실대학을 재건하는 데 적극 참여했다. 이 대학이 1954년 영락교회에서 개교할 때 그가 학장으로 일했다. 부산으로 피난했던 보성여학교도 영락교회의 서울 복귀(1953년 9월)와 함께 교회 안으로 복귀했다. 그해 12월에 영락교회는 돈암동에 경로원(양로원)과 모자원을 설립했다.

영락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1959년 12월 첫 주일 저녁)에서 한경직은 '영락교회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상부상조'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³ 영락교회 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특히 6·25전쟁 중의 피난처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진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가 도와주고 의지했다고 회고했다(예, 직업과 직장 소개, 거주지 마련, 고아원, 모자원, 경로원 등). 영락교회는 북한 전역과 남한 각처에서 모인 피난민들이 모인 가난하고 보잘 것 없고 연약한 피

난민 교회인데, 교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실천했기에 사회 속에서 대단한 결실을 보았다고 자평했다(예, 사회복지기관 설립, 학교 설립 등).

2. 전후(戰後) 사회재건에 기여한 교회

1) 기독교학교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

앞에서 살펴본 대로, 월남 피난민 교인들의 가장 절실한 염원은 자녀교육이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녀교육이 가족의 미래를 밝힌다고 확신했기에 교인들은 매일 끼니 걱정을 하면서도 자식 교육만은 반드시 시킨다는 의지를 갖췄다. 이렇게 굳은 의지 안에는 부모인 자신들이 다녔던 북한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부모들은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히 높았다.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 부모 잊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모아서 야간에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자 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김찬호가 1951년 8월 서울에서 성경구락부(공민학교)를 열어 운영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왕성했던 성경구락부 설립은 한국의 일반 교육사(敎育史)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육운동이었다. 1952년 11월에 성경구락부의 재학생이 서울에 약 7,000명, 충주에 약 1,000명, 거제도에 약 2,000명, 인천에 약 1,500명이었다. 1953년 2월에는 전국에 300~400개의 성경구락부가 있었고 또 전체 재학생이 약 30,000명이었다. 이 무렵, 서울에는 93개의 성경구락부가 운영되었고 남녀 재학생이 9,750명이었다. 성경구락부는 초등학교 수준의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성경과 생활신앙도 함께 가르쳤다.

3 『한경직목사설교전집』 제 4권, 176.

1954년 6월에는 전국적으로 약 1,500개의 성경구락부가 있었고 재학생이 약 55,000명이었다. 그해 11월에는 전국의 재학생(장로교회 소속 성경구락부)이 약 70,000명이었다. 성경구락부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대다수 신학교의 졸업생이거나 재학생이었다.

2) 산업전도

1950년대 후반에 한국 장로교 총회는 '산업전도'에 착수했다. 산업전도가 교세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전도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교회 지도자는 6·25전쟁 전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한 교역자들이었다. 이와 관련된 산업전도 배경에는 월남 피난민의 역사가 있다. 월남 피난민들이 처음에는 38선 근처 남한에 머물렀다. 조만간에 고향(북한)으로 돌아갈 꿈과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월남 피난민의 약 60% 정도가 이 지역에 정착했다. 그 나머지 대다수 피난민은 서울, 인천, 부산, 그리고 대구 등지에서 삶의 둑지를 틀었다. 이것이 남한 대도시의 인구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남한의 도시화 비율이 1949년에 17.3%, 1950년 18.4%, 1955년 24.5%로 계속 증가했다.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산업전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때는 1957년이었다. 4월 12일 총회의 전도부 안에 '예장산업전도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산업전도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동남아시아교회협의회 산업전도부 총무이자 미국 연합장로교회 선교사였던 헨리 존스(Henry D. Jones)가 3월에 내한해 독려하면서 부터였다. 그는 이듬해 필리핀에서 개최할 제1회 '아시아 산업전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아시아 전역을 순회하며 교회들이 산업전도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장로교 총회가 1958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교단 총회의 산업전도를 받아들인 산업체들은 근로 노동자 수가 적게는 4백 명에서 많게는 5,000명에 이르는 공장들이었다. 예를 들어 동양방직,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 금성방직, 삼호방직, 조선방직, 조선견직, 전남방직 등은 노동자 수가 1,000명이 넘었으며 조선방직은 5,716명에 이르렀다. 이때의 산업전도는 근로자 전도를 통해 교세 확장에 기여했다.

3)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한국 교회는 피난살이 자기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눅 10:25-37).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을 먹이고 잠재우고, 또 부상당한 병사의 수발을 들고, 배움의 기회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했다. 당시에 설립된 공민학교와 성경구락부 대다수가 정규 학교로 발전했다. 전후(戰後)에도 교회가 사회복구와 재건을 위해 앞장섰다. 이 중에서 월남 피난민 교인들이 1950년대에 남한에서 섬유산업 등을 일으켜 남한 경제의 자립에 공헌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는 산업전도를 통해 노동의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일깨웠다.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또 전후(戰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당시 교인들은 오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무엇인지 일깨운다. **만남**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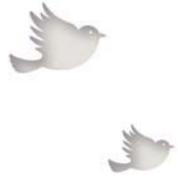


임희국 명예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 이 글은 집필자의 책에서 상당 부분 가져왔습니다. 임희국, 『한국 장로교회 130년.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216-241.



복음이 통일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한국 교회 구국기도대 성회>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아직도 개최 여부가 불분명하다. 대성회 준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올해는 6·25동란 70주년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곁은 화려하지만 속은 깊게 병들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될 때 북한 땅에는 거의 3,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지만, 남한 땅에는 200여 개밖에 교회가 없었다. 거의 무교회 지역이 많았다.

광복 후 남한에 내려온 분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이다. 영락교회는 우리나라의 모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꿈꾸며 상징적인 의미를 살려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영락교회를 기도회 장소로 정한 것이다. 귀한 결정을 해 주신 김운성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한다.

150차례 방북,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펼쳐

나는 지난 수십 년간 개인적으로 북한을 오랫동안 체험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는 길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북한 선교라는 중요한 목표를 두고

캐나다로 온 지 벌써 35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150번 북한 땅을 밟으면서 그들의 고난의 행군을 함께했다.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했다. 굶어 죽는 북한 주민 100만 명을 살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20년을 달려왔다. 북한 전역의 고아들 가운데 1만 350명을 입양해서 먹이고 입혔다. 양로원과 탁아소를 7개 이상 지어 주었고, 초등학교 건설, 평양 영어 교원강습소 건설, 병원 건설, 2천 명이 들어가는 목욕탕 건설,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집 짓기, 이 불 없는 분들을 위한 수만 채 이불을 전해주었다. 큰물(홍수) 피해 당한 지역에 찾아가 음식과 매트리스, 약품을 제공했다.

우리 교회가 도왔던 지역은 북한 전역에 걸쳐 있다. 신의주, 황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종성, 샛별, 회령, 자강도 등 수많은 지역을 도왔다. 식량으로 사용할 옥수수만 해도 3천 트럭이 넘는다. 양식을 구하지 못할 때는 라면을 30억 원어치 보낸 적도 있다.

우리 교회와 후원자들이 현금해서 지원한 것만 55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96~98년에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굶어 죽어 가는 내 동족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역사에 보기 드문 비극이었다.

949일간의 북한 억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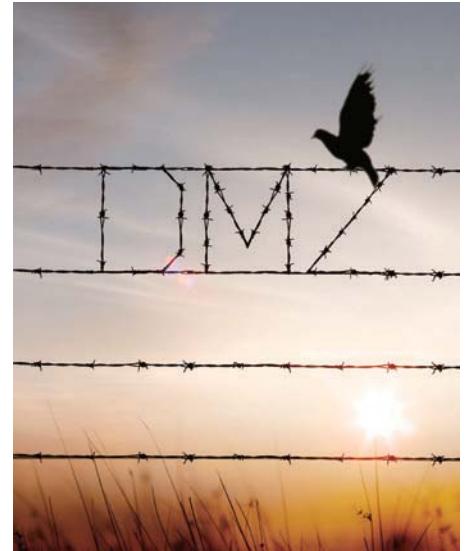
나는 북한 전역을 거의 다 다녀 보았고, 김정일의 특별한 배려로 사증(비자)도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29일 그들의 간청으로 하루 방문하고 온다고 들어갔다가 의도적인 그들의 흉계에 의해 붙잡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 번 방문에 일주일 씩만 잡아도 총 3년 동안 북한 땅 여기저기를 다녔던 셈이고, 949일간 감옥에 잡혀있던 것까지 더하면 6년을 북한 땅에서 지낸 것이다.

북한은 내가 미국에서 한 설교 중에서 북한의 우상숭배 현실, 김정은의 폭력정치, 북한의 비참한 고아 수만 명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을 입수해 온갖 죄목으로 나를 체포했다. 최고존엄 모독죄,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 유엔 주재 북한대사에게 전도한 죄,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등의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후에 다시 종신 노동 교화형으로 바뀌었고 결국 끌려나와 캐나다로 돌아왔지만, 그 일로 북한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집단이 공산당이라는 것을 알았다. 혁명에 반대하는 인물은 누구 듣지 처단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복음이 통일의 유일한 희망

949일 동안 노동하면서 감옥에서 지낸 긴 시간은 다 말 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너무도 억울하고 모순된 재판을 받기는 했으나 우리 주님이 받으신 억울한 재판과 십자가 처형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 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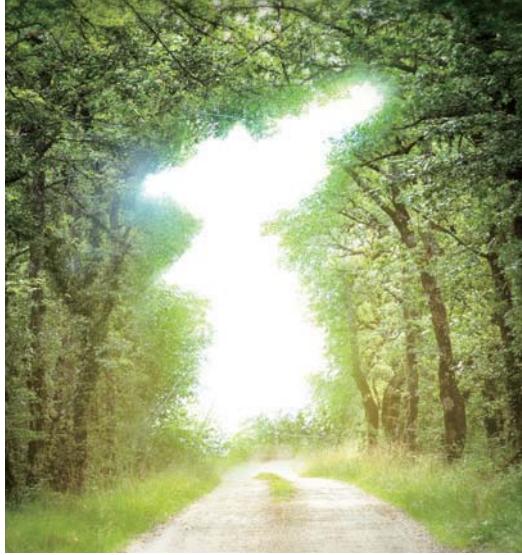
나는 그 시간을 선지자들의 고난(요셉, 다니엘, 예레미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결론은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그 연단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손길을 깨달았다.



감옥 안에서 성경을 수없이 읽고 암송했다. 노동하면서 기도를 배웠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한 기도가 나왔다. 답은 확실해졌다. 나를 조사하던 사람들과 간수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통일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통일 지상론자들의 이론적인 통일은 통일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뜯구름 잡기라는 것을 알았다. 북한 땅에서 김일성 회고록을 비롯한 100권의 책을 읽어 보았고 수백 개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북한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저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살리는 길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길밖에 없음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분단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게 되는 이 시점에 한국 교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너무도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북한의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다.



빵과 복음을 동시적으로 전해주어야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던 땅에 6만 개 가까운 교회가 세워지고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한다. 남한의 5,000만 더하기 750만 해외동포까지 하면 거의 6,000만 명이지만 북한은 2,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도 없다. 사회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그들은 반만년을 한반도라는 땅에서 단일민족으로 함께 살아온 우리의 골육이자 혈육이며 형제들이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잠 17:17)는 성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시간이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도와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아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은 원수라도 주리면 먹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빵과 복음을 동시적으로 전해주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사역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

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골육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지금은 금식하며 울며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시간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지 130년이나 지났건만 아직 북한 땅은 흑암이 지배하고 있다. 이 어둠을 걷어내는 강력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은 마음을 찢으면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철저하게 통회자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살린 영락교회가 북한까지도 살리는 모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도한다. **만남**



임현수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TMTC 대표

‘세계인의 성자’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한국 교회 대표적 순교자 손양원 목사 (1902~1950)

1995년 10월 9일로 기억된다. 가수 김수철과 영화배우 오정해 등 연예인이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80주년 기념공연을 했다. 천여 명의 나환자(한센씨병),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소록도 ‘나환자 수용’이래 최대 행사였다.

이날 공연은 ‘작은 거인’으로 불렸던 김수철이 그곳 환자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동료 연예인을 설득해 이뤄진 공연이었다. 지금이야 다리로 이어진 물이지만 그때만 해도 소록도는 고립된 섬이었다.

당시 30대 초반 문화부 기자인 내게 소록도는 ‘긴장’되는 곳이었다. ‘문동병’이라는 두려움을 떨쳐 내기 쉽지 않았다. 그때 나는 신생아를 둔 아빠이기도 해서 아내에게 그곳에서 본 일들을 소상히 알리지도 못했다.

일그러지고 문드러진 한센씨병 환자 어르신들이 청한 악수에도 그들이 이것저것 먹을 음식을 챙겨줄 때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고 주저하며 먹지 못했다. 소록도 신성교회 하모니카합주단으로 구성된 환자들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등 찬송가 연주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힐책하는 것 같아 몹시 부끄러웠다.



공연 이튿날 아침. 김수철 씨를 해변 소나무 숲에서 만나게 됐다. 그는 소록도에 근무 중인 군의관 후배를 찾아 그곳을 찾게 되면서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곳의 노인 환자들을 제 몸처럼

아끼는 간호사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right now)’ 움직이고 싶었다고 했다. 손양원 목사와 여수 애양원 얘기도 그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그 아침의 기억은 내게도 명징하다. 소록도병원 관사에서 병동까지 거리가 100m도 되지 않는데 20대 초반의 간호사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도시의 커리어우먼처럼 성장하고 출근하던 장면은 몽환적이기도 했다. 그들은 1분여의 출근을 위해 화장을 하는 청춘들이기도 했다.

그날의 소록도 공연 취재에서 받았던 감동 이후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전남 고흥 소록도와 전남 여수 애양원을 가끔 찾곤 했다.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1902~1950)의 삶을 알고 나선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어림 없는’ 마음도 들곤 했다.

우리 민족에겐 ‘애국지사’ 손양원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한센씨병 환우들을 위해 일하는 수고

자들과 손양원 목사의 삶을 알리는 일을 문서선교라고 생각했다. 또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기부로 ‘지금 당장’ 움직이곤 했다.

처음 전남 여수 애양원을 방문한 1990년대 충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손양원 목사(1902~1950)의 헌신과 순교 기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 논증이 부족했다고 할까. ‘열정적 개신교인의 마음을 담은 순교 신앙의 공간’이었을 뿐 일반인이 찾던 곳은 아니었다. 손양원 목사의 ‘위대한 사랑’이 신화화되어 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었다.

다행히 한국기독교가 2000년 대 들어 역사신학과 민족주의 역사학 관점에서 새롭게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손양원 목사의 삶 또한 ‘이야기’에서 ‘역사’로 자리해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애양원만이 아니라 손 목사의 고향 경남 함안에서도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등을 건립해 활발한 자료 발굴과 민족의 인물로서의 손양원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이만열, 차종순과 같은 원로 학자의 연구에 힘입은 바도 크다. 이어 젊은 후학 이명재, 박준영 등과 같은 신진들이 청찬 일변도의 현정적 인물기에서 벗어나 ‘시대의 참 스승’을 찾아나가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의 전기(biography)는 대서사이지만 서너 줄 요약으로도 그가 갖는 희생적 사랑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그는 1902년 경남 함안의 전통적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3·1 운동에 참여했고 일제의 궁성요배에 저항했다. 1938년 평양신학교 졸업 후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를 돌봤고 신사참배를 거부해 투옥됐다. 여순반란사건 때 좌익으로부터 두 아들을 잃고,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다. 1950년 6·25전쟁 중 인민군 총에 순교했다.

‘순교’는 자기가 믿는 종교, 즉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을 뜻한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이다. 그런데 이 사실(史實)은 우리 안의 언어다. 즉 성도에게 기단없이 쓸 수 있는 영광된 면류관의 언어다. 천국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설교자가 강단에서 “손 목사님께서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해도 그 레토릭(수사·修辭)은 설득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양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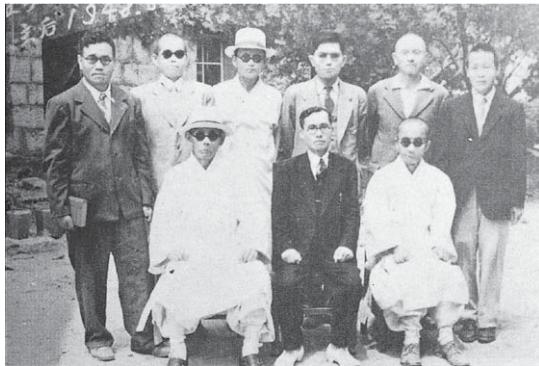
하지만 일반인을 향한 메시지였을 때는 그가 지녔던 ‘진실’과 ‘정의’는 옅어지고 ‘설교자의 화려한 문체’만 남는다. 애양원 내 기념관과 교회, 고향의 기념관 등에 새겨진 화려한 문체는 그 문체를 구사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언어로



1 전남 여수시 둔덕동 ‘손양원 목사 순교지’에 조성된 기념 조형물. 6·26전쟁 당시 체포된 손 목사는 ‘외팔이 전도사’ 윤형숙 열사 등과 함께 당시 과수원이었던 이곳에서 희생됐다.

2 경남 함안 손양원 목사 생가터에 조성된 ‘애국지사 손양원 목사 기념관’.





손양원 목사(앞줄 가운데)와 여수 애양원 당회원들(1948년)

밖에 볼 수 없다. 강단에서 손양원 목사 순교 예화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손양원은 서울 중동학교 등을 다니다 아버지의 동방요배 거부와 자신의 3·1 만세운동 참여로 그 학교를 퇴학당하고 일본 스가모중학에 입학한다. 거기서 동양선교회지도자 나카다 주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나환자를 돌보는 계기가 됐다. 예수가 그러했으므로 손양원은 믿고 따랐다. 20대 초반 나환자촌 애양원에 부임한 목회자 손양원. 그때 문동병으로 고향에서 버림받은 스물셋의 나환자 처녀가 훗날 손양원을 증언했다.

“살 썩는 냄새를 못 느끼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광견병같이 무서워하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세계에, 손양원 목사님은 한창 청년 스물 그때, 서이네이, 다섯 살 때요. 그럴 때 무서워하지도 않고 누가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당신이 찾아왔어요.” (한센씨병 환자 故 김수남 생전 구술)

또 다른 환자의 증언.

“어떤 남자 환자 한 명이 다리에 상처가 나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디 보자’ 그러더니 시상에 당신이 입으로 그 상처에도 당신 입을 대서 그 고름을 안 빨아냈소” (한센씨병 환자 김판임 2013년 구술)

또 김판임은 손양원의 주검을 직면하고 이렇게 기억했다.

“(나환자) 천이백 명이 전부 하얀 거로 조기 하나씩을 다했는데 얼마나 많았겠소. 나환자들이 목사님 유해 한번 썩 돌고 저 신풍 둑길 거기까지 갔다가 들어와서 애양원 한 바퀴 돌아가지고는 와서 장례식을 했어요.”

“두 오빠가 순천에서 자취 생활을 하다가 여순사건으로 죽었는데 그 유품이 애양원으로 전달돼 왔어요. 그때 아버님이 큰오빠 교복을 붙들고, 작은오빠 교복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우시데요.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나의 아버지 손양원 회고록’ 저자 손동희 2013년 구술)

“첫째,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의 기도 중)

이것이 실증적 1차 사료의 레토릭이다. 이러한 신앙의 진실이 성도에겐 순교자, 세상 사람들에겐 애국지사로 확장할 수 있는 연구의 기본이다. 손양원 목사의 일기, 관련 사진, 옥중서신, 설교문, 일경의 진술 조서, 증언 확보 등이 2천년대 들어서야 본격화됐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의 명성에 비해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는 그의 예수 정신과 역사의식을 교계가 ‘순교자’ ‘신앙인’이라는 틀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민족에게는 ‘애국지사’요, 세계인들에게는 ‘성자’로 불려야 한다. **만남**



전정희
국민일보 부국장 겸 논설위원

머리에 봉대 감고 세상을 ‘앓던’ 조만식 선생



1945년 9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조만식.
머리에 봉대를 감고 있던 이 사진이 고당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다.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문득 고당 조만식(1882~1950) 생각이 났다. 며칠 전 모교인 송실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보고 온 고당의 사진 표정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고당을 애모한 어느 시인은 그를 ‘머리에 봉대를 감고 세상을 앓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고당의 세상은 곧 나라였다. 서울에서 고당의 사모님께 들은 얘기가 떠오른다. 김일성은 정권을 차지했으나 북한 국민의 정신적 지지는 받지 못했다. 반대로 고당의 뜻은 모두가 따르는 실정이었다. 그렇다고 고당을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평양 도심에 있는 고려호텔에 그를 연금시켰다. 외출을 금지하고 면회조차 가로막았다. 한 달에 두 차례쯤 한 시간씩 사모님에게만 면회를 허락하곤 했다.

한 번은 면회 온 아내에게 “다음번 면회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각오하고 한 번만 더 오라”고 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묻는 아내에게 고당은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

는데 언제나 지금 같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내가 마지막 면회하러 갔을 때였다. 고당은 근엄한 자세로 “나는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빨리 38선을 넘어가라”고 했다.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남아 있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는 서랍에서 커다란 흰 봉투를 꺼내 주었다. 아내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가서 보면 안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 보았더니 머리카락이었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넣은 것이다. 아내는 놀라기는 했으나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후일에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장례를 치려야 하겠고, 빈 관으로 장례 절차를 밟을 수는 없으니까 갖고 가라’는 유물이었다. 사모님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남편이 ‘서울에 가더라도 많이 힘들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나를 대



1937년 정월 초하루 평양산정현 교회의 제직원 일동사진.

(앞줄 왼쪽부터) 조만식 장로, 김동원 장로, 박정익 장로, 주기철 목사, 유계준 장로, 김봉순 장로, 오윤선 장로, 김찬두 장로. 이 사진에 있는 여러 사람 중 고당을 포함한 9명이 일제의 강압을 이기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매년 2월 1일은 조만식 선생의 탄신일이자 '고당의 날'로 정해져 있어. 이날 탄신기념 예배나 경모(傾慕) 모임을 열어왔다. 사진은 1985년의 경모모임. 한경직(韓景職) 당시 고당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함석헌(咸錫憲) 선생이 추모 강연을 했다.



신해서 고생을 참아달라'는 당부를 남겼다"라고 했다.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키기 얼마 전에 기독교연맹의 김창문 목사 명의로 대한민국에 제안해왔다. 조만식을 대한민국에 보내줄 테니까 서대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산당 책임자 이주하, 김삼룡과 교환하자는 것이었다. 그 뜻은 성사되지 못했다. 북측의 간책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의 계획대로 6·25전쟁이 폭발했고 고당은 같은 해에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당의 영결식도 치렀다.

고당은 나의 중학교 선배이기도 했으나 우리 모두의 지도자이면서 스승이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많은 국민을 북에 남겨두고 탈북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고당은 20대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조국을 위해 산 선각자였다.

스스로 질문해본다.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국가와 민족인가, 아니면 정권인가.

고당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만남**

김형석 명예교수_연세대 철학과 사진제공 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 이 글은 조선일보 2019년 5월 4일자 칼럼으로, 조선일보와 필자의 동의하에 게재합니다.

강소국 이스라엘이 주는 교훈



나는 몇 년 전 이스라엘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다. 주변의 거대한 중동국가들과 오랫동안 외교적, 군사적 갈등을 겪어온 나라다.

우리도 여전히 북한이라는 큰 군사적 위협을 안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미사일 침공과 테러 위협 속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준전시 상태의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즉시 군에 입대해 의무복무를 한다. 대학 진학은 모두 그 이후의 일이다. ‘탈피오트’라고 하여 매년 50명 정도만 선발되는 소수인원 외에는 거의 예외가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교가 된다는 점이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딸이 군에 가서 겪을 고생을 생각하면 아마 잠이 안 와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딸이 호된 훈련이 힘들어 집에 전화하면 그가 말하기도 전에 “훈련이 힘들어서 전화 했지? 집 생각 하지 말고 훈련에 전념해라. 엄마도 전에 다 받아 본 훈련인데 조금 지나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답한다. 유태인 혈통이 모계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어린 딸에 대한 아픔을 속으로 삽이며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아니 오히려 나약해진 딸의 마음을 이렇게 단호히 채근할 수 있는 강한 어머니가 있기에 오늘날의 ‘강소국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엄정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줘야

그래서일까? 수년 전에 한국에 근무했던 이스라엘 대사가 남긴 말이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 “한국인들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어느 부대에 있었는지를 제일 먼저 물어본다. 이스라엘에서 군은 국가의 인큐베이터이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많은 분으로부터 아들의 군 복무에 관한 청탁성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제들도 물론 포함된다. 대부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고 격려해 준 기억이 난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소위 기성세대라고 일컫는 어른들 중에 우리의 아들, 딸들인 젊은 세대의 가치관, 국가관, 안보관 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본다. 전쟁을 경험했거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던 시기를 살아온 어른들로서는 분명 오늘날 젊은 세대의 국가관, 안보관이 너무 유연하거나 감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강소국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님을 언급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먼저 우리는 거창한 애국심이나 국가관, 안보관 등을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또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부터 먼저 우리의 아들, 딸 세대에게 나라 사랑과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상의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 세대에게 엄정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삶으로 가르쳐주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6월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또 현충일,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이 집중되어 있는 달이기도 하다. 적어도 이 6월만큼은 나라 사랑에 대해,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국가관, 안보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만남**



김학주 장로
육사교회
예비역 육군중장

6월, 지금 우리를 생각한다

애국선열들이 남겨주신 교훈

6월이 오면,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순국하셨던 분들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진다.

일제 치하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의 무대 용정에 가면,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세운 탄식비가 서 있다. “사나이 이 한 목숨 나라를 위해 바치고자 하나 바칠 조국이 없구나!” 이 비장한 비문을 읽는 순간 가슴이 절로 미어짐을 느낀다.

한평생 조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서 헌신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는 “사람은 집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나라를 잃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역설했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기난해도 살 수 있고, 머슴으로도 살 수 있지만, 나라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관순 열사는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라며 순국했고, 그 부친과 오빠도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아래 순국했다.

순국열사들이 이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싸울 수 있었던 힘은 하나같이 굳은 신앙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안중근, 김구, 이승만, 류관순 열사 모두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다.

순국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있다.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일신의 영달을 위한 생업에만 매달리

지 말고….’

국권을 잃은 민족들이 겪은 수난의 역사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안겨준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6백만 명이나 학살되면서도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제연맹이 나치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 해도 내정간섭이라며 일축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럽 곳곳에서 특유의 우수한 능력으로 대부분 풍요를 누리고 살았지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치의 학살 쓰나미를 피할 수가 없었다. 오늘 날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2,700만 명의 쿠르드족 또한 국가를 이루지 못한 터에 소수민족으로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일제 치하를 생각하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일제 만행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뜻있는 민족지사들이 가산을 몽땅 털어 독립군을 일으켜 일제에 항거했던 일을 생각해본다. 많은 애국지사는 국권을 잃은 상황에서 개인의 영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어떻게든 목숨이라도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고귀한 희생을 불사했다. 그만큼 국권은 소중한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면 이처럼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순국열사,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과 우국충정을 주체할 수 없다. 오늘의 빛나는 대한민국은 그분

들의 무수한 희생을 바탕으로 일어선 것이다. 그분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아낌없이 던져주신 것이다.

폐허 속에서 국가발전을 이룩한 우리의 선대들

돌이켜보면, 1950년 6월 25일 국가체제가 미처 정비되지 못한 상태였던 신생국가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전 국토가 폐허로 변했다. 그러나 전후 한국은 불과 70여 년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성장국가를 건설했다. 그것은 혹독하게 힘들었던 시절을 오로지 '국가 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진한 결과였다.

국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군사, 산업·과학기술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 오늘날 한국은 국제사회가 부러워하는 세계 10대 경제교역국, 6대 국방력, 여섯 번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

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위업을 달성했다. 실로 감개무량하지 않은가!

자원 빈국인 데다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의 선대들은 순전히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러한 국가발전을 이룩해낸 것이다. 수출 외에는 달리 길이 없음을 인식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구미, 울산, 창원, 포항, 인천, 구로, 대덕단지 등 수출자유특구와 중화학공단을 건설하면서 국내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 차원의 세제혜택과 국제시장 개척에 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전자부품, 80년대 조선, 90년대 자동차 및 가전제품, 2000년대 모바일폰을 포함한 초고속 정보통신기술 제품들이 세계시장을 점유하면서 오늘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성공의 열쇠는 바로 한·미동맹이었다. 중국 및 소련과 동맹을 맺었던 북한의 파탄 난 경제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무상원조를 시작으로 국가



재건을 파격적으로 지원했고, 무역 최혜국 대우를 장기간 보장함으로써 한국 상품이 미국과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국은 이를 발판 삼아 세계시장을 힘차게 개척해낼 수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삼성과 LG, SK 같은 대한민국 브랜드가 시장을 석권하며 진가를 발휘하기까지에는 지난 50년 이상 끈질기게 이어온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게다가 오늘날 한류문화는 국제무대를 압도하고 있다. 영화계의 최고봉인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상을 비롯해, 빌보드차트 톱을 달성한 방탄소년단(BTS)과 여러 남녀 뮤직그룹들의 글로벌 공연들, 그리고 축구, 야구, 빙상, 골프, 양궁 등 스포츠에서의 뛰어난 기량과, 바둑, e-스포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등은 가히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켰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공연 때 6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함께 큰 소리로 불러대는 한국어 ‘떼창’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진풍경이었다. 일제의 팝박으로 암울했던 시절, 백범이 주장했던 자랑스러운 문화대국 대한민국이 실현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이러한 국가위업을 달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후반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필자는 백화점 할인코너에 먼지 쌓인 채 싸구려 취급받고 있던 한국산 가전제품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워싱턴에서 맹활약하는 안보전문가 오공단 박사의 증언은 실로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백화점에 가면 한국산 가전제품들이 제일

비싼 가격대에 진열돼있고 할인도 일절 없어서 무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전 세계 렌터카 회사들이 운행하는 차량 중에서는 한국산 차량이 단연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연마해온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이제야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순국열사, 애국지사들이 목숨으로 씨 뿌려 닦아놓은 터전 위에, 50년 이상 국가산업 전 분야에서 우리의 산업역군들이 불철주야 물불 가리지 않고 피땀으로 희생하며 이룩해낸 위업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책무가 있다. ‘국가안보는 개인의 생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애국선열들이 남겨주신 교훈을 오늘에 되새겨 보다 수준 높고 경쟁력 있는 눈부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책무 완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겠다. 또한 후진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훈육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만남**



홍성표 안수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선교부 군경선교팀장

위기의 시대,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와 더불어 역사의 상흔을 품고 있는 6월을 맞으며 우리는 매년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주일(올해는 5월 31일)을 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력과 힘의 근원인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가 모든 영락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전통에 따른 성령론에 대한 강조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교단은 은사를 동반한 신비체험을 신앙의 중심에 두곤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구원 사역에 있어 중생의 주체인 성령(고전 12:3, 앱 1:13, 빌 1:19, 살후 2:13, 딸 3:5)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다른 성령론에 관련한 큰 주제인 창조와 생명, 성경과 본질 그리고 권위에 관련한 내용의 심화와 확장을 ‘믿음’이라는 목회적 언어를 중심으로 피력한 영향력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자칫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고

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열광적이고 무속적인 성향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에 의해 얻어지는 믿음은 교리적 또는 은사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요 14:16~18)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돋는 ‘보혜사’에 대한 이해와 체험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는 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과 열매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여매는 띠(bond)로써 중생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는 암울한 악의 현실 속에서도 성령에 의해 여전히 진행(요 16:8~11)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 사역의 근간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비를 바르고 건강하게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더불어 올바른 믿음에서 시작된 신비가 망상이 아니라는 증거는 주의 성령의 초월적 현존이 현실을 이겨내는 힘, 세속에서 거룩할 수 있는 능력, 무엇보다 삶의 모든 문제에 승리할 수 있는 열매(갈 6:8)로 드러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비록 두렵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 가지는 첫 믿음입니다.

생명의 삶에 대한 약속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코로나19의 공포는 백신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고, 감염되면 죽을 수 있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한계 앞에서 우리 믿음은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갈 것을 진심으로 믿는가? 내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감격과 말씀의 은혜가 진정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

인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성령께서 수없이 역사하셨지만 가장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태(마 1:18)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롬 8:11)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앞에서 질문한, 죽음을 포함한 삶의 난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무게, 사라지지 않는 고통에 대한 공포, 절망 등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코로나19에 그리스도인은 감염되지 않는다는 미신이나 나 혼자만 불로장생하려는 광신, 혹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맹신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나의 삶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그분의 보호 속에 내가 있다!’라는 확신은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의 신비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를 통한 믿음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4월 28일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현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는 현재 상황을 병든 사람들과 지구를 구해야 할 기회라고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거시적 해결책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국가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상호 협력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보다 나은 삶의 가치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 듯,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가장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역사에 있어 인류는 한계 상황에 대처해 공존 또는 희망과 같은 이상적 해결책을 말해왔지만, 그 응답은 언제나 현실에 충실한 인간의 욕망이었고 자기 사랑의 죄 된 성향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미 고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본심과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며 죄의 심판을 피해 흘어짐을 면하려는, 주체성으로 포장된 죄 된 본성(창 11:4)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이기적 본성 충족을 따라 모이거나 협력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반역한 죄인들을 다른 목적과 이유로 모이게 하시고 UN 사무총장이 요청하는 치유와 회복, 협력과 공존과 같이 인류가 결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초월적 이상을 실현하셨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임재하셨던 교회의 태동 사건(행 2:1~47)이었습니다. 그곳은 생존을 위한 이기심으로 인해 차이가 혐오와 차별로 발현되는 욕망의 도가니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초월해서 한마음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주의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을 초월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에 관련한 믿음입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보증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와 시간은 과거에 늘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된 자들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큰일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들은 인간의 큰일에 열광했고 그로 인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45:5)

현실의 실제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하신 백성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미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고후 5:5, 엡 1:14)으로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생명의 삶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를 통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바이러스를 세상 가운데 전염시키는 성령의 사람들 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남**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그 이름은 아즈위!

넬슨 만델라의 희망

1964년, 이 사람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절해의 고도 루벤섬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방은 다리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으며, 짜그러진 양동이 하나가 변기 대용으로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남자 죄수에게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되었으며,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내어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이미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변두리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남자는 땃물이 짜든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잇조각 하나를 꺼내어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잇조각에 쓰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Azwie’ 아즈위. 희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13년이나 더 옥살이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46살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 72살이 되어서야 바깥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즉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UN은 그를 세계인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전직 백인 대통령이었던 클레르크와 보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차인태 은퇴장로
중구·용산교구



2013년 요하네스버그에서 95세를 일기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인들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만델라는 어떻게 절망의 시간을 견디어 낼 수 있었을까요?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리교 신자로서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즈위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이 된 후, 그가 만든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관용과 사랑으로 흑백 사이의 민족 화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용서하되 잊진 않는다”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넬슨 만델라는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덧입어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넬슨 만델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닮은 자, 그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품에 품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넬슨 만델라와 같은 그리스도인 리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즈위! **안녕**

복음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

2020 북한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이북 공산당이 꿈꾸는 적화통일이 아니라, 자유가 중심이 되는 통일, 나아가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한경직 목사)

“북한선교는 하나님이 영락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철신 목사)

“복음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헌신된 일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김운성 목사)

남북 분단 75주년, 6·25 전쟁 70주년에 즈음해

올해는 남북 분단 75주년이며 6·25 전쟁 7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6.25 당시 김응락 장로와 김창화 집사가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아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인지 청소년들은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잘 모르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해방 전에는 북한에 약 3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고, 평양과 선천 등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 그 많던 교회는 다 파괴되고 종교의 자유가 말살된 현실을 청소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실상을 영락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겠

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백여 명의 자유인(탈북자)들이 매 주일 오후 1시 선교관에 모여 자유인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중에서 자유인 출신 목회자가 여러 명 배출되어 개척교회를 어렵사리 섬겨가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도움이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23회째를 맞이하는 북한선교대회

1998년부터 시작된 북한선교대회는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합니다. 매년 6월이면 개최하는 이 대회를 통해 우리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렸던 2019 북한선교대회

영락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통일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각자 자신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에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 북한 선교대회 주제는 ‘복음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으로 정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금년도 대회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맞이하는 2020 북한선교대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매년 북한선교대회는 북한 동포사랑기도회 및 자유인 간증, 송악기도처 방문, 영락포럼, 영화상영, 북한선교주일 북한선교목적현금 봉헌과 베다니광장에서의 다양한 체험 행사 그리고 찬양예배 시간의 주강사 초청 설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꼬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분위기속에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했고,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예배당 예배가 재개됐지만 예배당 좌석의 간격을 일정 거리 이상 띄어 앉는 등 다수의 성도가 모이는 것을 자제하면서 각종 교회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베다니광장 행사를 예년처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서 온라인을 접목한 북한선교대회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6월 3주간에 걸쳐 첫 주(6/7)는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상기하는 6.25 영상자료 상영, 둘째 주(6/14)는 김응락 장로 등 영락의 신앙유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셋째 주(6/21)에는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청소년 가정에 ‘복음통일 화분’을 하나씩 배포할 예정입니다. 복음통일 스티커를 붙인 화분에 씨앗을 심고 식물을 기르며 복음통일과 북한동포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복음통일 씨앗심기 행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북한선교주일에 봉헌될 북한 선교목적현금은 북한교회 재건과 자유인 사역지원, 북한 긴급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초교파 행사인 ‘한국 교회 구국기도대성회’와 연계 진행

북한선교주일 당일인 6월 21일 찬양예배 설교와 영락포럼은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인 임현수 목사님이 맡습니다. 임 목사님은 1986년 캐나다로 건너가 현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997년부터 북한을 150차례나 방문하며 인도적 대북 지원에 힘써 왔으나, 2015년 1월 나선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회형을 선고받고 억류 생활 31개월 만에 풀려난 분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서 6월 25일(금)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한국 교회 초교파적 행사로 열리는 ‘6·25전쟁 70주년, 한국 교회 구국기도대성회’에서 김운성 목사님과 공동 섬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2020 북한선교대회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영락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무척 기대됩니다.

2020 북한선교대회와 한국 교회 구국기도대성회의 은혜로운 진행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만남**



홍영남 장로
종로·성북교구
북한선교부장



하나원 태동의 디딤돌 영락교회

1980년대 초, 소수의 탈북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에서 밀착보호하고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누구의 안내였을까요. 당시로서는 매스컴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들이 영락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환영 시간에 큰 박수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영락교회는 고향이 북한인 선배 탈북인들이 세웠고, 이들의 2·3세대 후손들이 많기에 애틋함을 담은 그 크고 길었던 박수 소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 후 정착 과정 경험이 많은 영락교회가 탈북인들을 도왔습니다. 살림도 장만해주고 공부 안내도 하며 대한민국 정착을 도왔습니다. 탈북인이 소수였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그 수가 늘어나 탈북인 정착 지원을 국가에서 하는 데 많은 부분 영락교회 초기 정착 안내를 참고함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지금도 영락교회는 하나원 하나교회를 설립해 믿음에 근거한 정착을 도우며 전원에게 성경 보급과 전자레인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월 2회 정기 방문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1945년 한경직 목사님과 27명의 북에서 온 실향민들로 세워진 영락교회는 복음통일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강인덕 은퇴안수집 사께서 통일부장관 재임 중 하나원 설립을 진행하신 것은 준비된 영락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원의 정식 명칭은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입니다. 탈북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사회정착교육을 12주 과정으로 받는 곳입니다

1999년 안성하나원이 시작되었고 2012년 화천에 제2하나원이 생기며 현재 안성에서는 여성들과 청소년 교육, 화천에서는 남성들과 부부 교육이 진행됩니다.

하나교회와 두 분 목사님

영락교회가 세우고 두 분의 목회자를 파송한 하나원 '하나교회'는 두 곳입니다. 2020년 현재 안성 하나교회는 정인근 목사님이, 화천 하나교회는 김종훈 목사님이 정착교육 기간 중 자유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내합니다. 두 목사님의 특별한 사명감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예배와 매일 새벽예배, 상담과 교제로 자유인들을 섬기며, 막막한 자유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정착지에 가서도 최적의 교회와 교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엮어주는 사랑의 띠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성 하나교회 정인근 목사님은 아버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 정 목사님은 부산 사투리가 구수하지만 가슴에는 돌아갈 고향 청진이 진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통일의 그날, 고향 청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교사인 사모님은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화천 하나교회 김종훈 목사님은 사모님이 탈북인입니다. 남남북녀 부부로 '먼저 온 통일' 가족입니다. 복음통일 준비로 가정을 통한 통일을 먼저 허락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모님과의 사이에서 딸과 쌍둥 이를 둔 복음통일의 마중물 가정입니다.

하나원 가는 날

주일 아침 다섯 시 반. 카톡! 일어나셨나요? “카톡 카톡” 기상체크.

매월 두 번째 주일은 청년부와 안성 하나원, 세 번째 주일은 대학부와 화천 하나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받은 영락의 젊은 영훈들이 앞장서 바릅니다. 영락 북한선교의 미래인

이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눈 비비고 새벽을 깨운 청년 대학생들, 교우님들과 반가운 만남도 잠시. 바쁘게 여러 가지 점검합니다.

여섯 시 삼십 분 교회 도착. 삼십 분간 정말 바쁩니다. 준비 완료,

출발 일곱 시! 이륙(버스 출발) 체크.

“자, 인원 점검하십시오. 다 오셨지요? 『만남』 챙기셨나요? 주보는요? ‘기독교란 무엇인가’는 중국어 버전도 챙겨주세요. 중국을 거쳐 오시는 분들은 중국어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오징어 선물 간식, 복음 팔찌, 어린이팀 용품도 잘 실으셨지요? 아차! 기내식(김밥) 없으면 비행기(버스) 출발 못 합니다.”

김밥 한 줄씩 나눠들고 기도로 출발.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날 소중한 자유인들, 그들을 주님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이 땅에 잘 정착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9년 통일부 하나원을 방문한 김운성 목사와 북한선교부 관계자들. 앞줄 왼쪽 세번째가 하나원 설립을 주도한 강인덕 당시 통일부 장관.

예배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혼자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수고가 대단하십니다. 탈북 과정에서 복음을 접한 일부 자유인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 존함조차 처음 들어 본 분들입니다. 두 분 목사님은 매일 새벽예배와 상담을 통해 초신자들의 믿음을 급성장시켜 놓으십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와 나눔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봉사하러 간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동의 축복을 누리는 고단함. 새벽부터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감사로 휘리릭!!

베테랑으로 구성된 하나원 팀원들

주일 새벽에 달려 나온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부터 감동입니다. “언제 한 번은 갈게요” 하면서도 그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봉사의 자리를 차지한 어엿함은 부스스하지만 멋집니다. 하나원에서 만나는 자유인들에게 귀 기울이며 복음을 제시하는 성실함에서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집니다.



화천 하나님을 방문하고서(2020년 1월)

하나원 팀원들 중에는 장기 봉사자,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소명으로 감당하는 기록적인 가정도 몇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소명’인 소명이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일찍이 청년부에서 하나님 봉사를 통해 가정을 이룬 소상균 집사와 김지연 집사, 아들 소명(초등 2)이 주인공들입니다. 소명이는 태중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하나님 봉사를 오고 있습니다. 자유인 어린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며 어른이 할 수 없는 진심어린 우정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봉사가 재미있고 좋아요. 하나님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북한에서 오신 자유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 봉사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하나님에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망도 갖가지. 통일되면 북한의 대학에서 학문과 복음을 가르칠 준비를 하는 김윤기 집사와 오수연 자매 가정, 사회복지로 북한 복지를 계획하는 대성 형제, 북한 의료와 장애인 사역을 품은 한빛·한나 가정, 7년째 하나님 사역

중인 청년 형선은 삶의 주요한 일부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저 맥 빠진 아이가 내 아들 같다고 울먹이며 마침내 하나님 형제를 아들 삼은 권사님,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열심 다하시는 어른들, 외톨이로 삼팔선을 넘은 소년이었던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 손길을 증언하는 탈북인 2세 김영미까지….

청년부, 대학부의 선도적 참여가 자랑스럽고 남녀노소 다양한 참여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다이내믹

하나원 사역은 사진 한 장 남길 수 없습니다. 출입 시 핸드폰,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 패용,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만 밟 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몸과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에 잘 오셨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을 환하게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우리 함께 영원히 살자고 기쁨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우리 눈에만 담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에서 만난 그분들 기도 잊지 않기! 그리고 퇴소 후 연락하며 만남도 지속됩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락 교인이라면 누구나 <복음통일학교>를 이수하시길 강추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통일을 먼저 경험하는 자유인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더욱 다 이내믹! **만날**



김영미 권사
고양·파주교구
북한선교부 하나님 팀장



뉴코리아국제학교 들여다보기



북한 동포들의 복음화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탈북 청년들의 교육을 향한 갈망과 동행하고 있는 뉴코리아국제학교(New Korea Global Institute, 이하 NK국제학교)는 아름다운 비전을 품었던 선배 교우들과 교역자들의 노력과 지금까지 참여해온 일꾼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기도로 조용하게 그 과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허락된 뉴코리아국제학교는 여건상 부족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교회 교육의 플랫폼 안에서 적절하게 교육적인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고 복음통일의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6개월 전 북한을 떠난 사람과 6년 이상을 남한에서 지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또 영어에 상당한 능력을 갖춘 사람과 영어 초보의 문턱을 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은 교회 교육의 기본 방향이며 가장 복음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다양함은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학생들을 세상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아끼며 교육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순수하기에 더 상처받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머지않은 훗날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생 편

선생님이 학생 편인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학생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편인 선생님과의 관계훈련은 자유인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해 가는데 많은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유인 청년들에게 교인, 남한 사람, 학교 선생님 등과 관계 맺기는 꽤 두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만들어 가는 신뢰와 기대는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는 학생들에게 좋은 훈련입니다.

어떤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장점과 특색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선택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부심과 개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삶의 노정을 설계하는 실험실이 되고 있다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존 학교보다 친밀감과 소속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다만 생소하고 이질적인 영어를 같이 배워가며 동행합니다.

현재 이를 위해 함께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만큼 다양합니다. 4대째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 대학교수, 해외 유학파 인재들, 영어 전문가, 교역자와 교회 중직자, 자원봉사 청년 등 다양한 교수진용을 갖추고 학생들 각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공감하며 서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우선 영어와 관련된 필요를 공감하며, 갈급함을 해소하는 데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과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영어 커리큘럼은 문법, 읽기,



뉴코리아국제학교를 섬기는 교수진

작문, 청취, 회화, 음운론 등 기본과목 1, 2단계를 개설하고 핵심 문법과 독해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배양을 통해 실용영어와 친숙해지고 학습의 진도 향상을 꾀합니다.

개인의 요청에 따라 TOEIC, TOEFL 등의 응용과목을 개설하기도 하며, 교육의 수준과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NK국제학교는 주 3일(화·목·금) 열립니다. 하루 2~5 과목이 진행되는데 과목 당 15주 교육을 통해 정규교육의 틀을 유지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2과목 이상을 수강 하여 4학기 동안 최소 8과목과 기독교세계관 학점을 취득하고, 제공되는 특강과 특별활동에 참여해 과정 수료의 요건을 마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처럼 하나의 과정을 마친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책임감 훈련을 성취합니다. 학교와 교회로부터

터 졸업생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수료 후에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カリ큘럼의 다변화

교육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의 비전과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선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과 과정에 개설된 기독교세계관 과목은 자유인 젊은이들이 기독교인으로 소양을 갖추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논술과 자기발표 과목을 통해 취학과 취직을 위한 기본 능력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남한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를 접하기 위한 연극 관람, 전시회 관람 등 문화 활동을 제공하며, 특강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접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 새순 교회 청년부와 브리지캠프를 통해서 국제교류와 신앙수련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은 교회와 학교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NK국제학교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공유하고, 영락교회의 교회 문화를 체험해서 현실적인 교회에 익숙하게 되며, 여러 교역자와 교사, 봉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다변화된 가치관에 접속하게 됩니다.

내일을 향해서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는 복음통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베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난관과 결단의 과정을 겪고 이제는 은혜 아래 학업의 길을 가고 있는 자유인 젊은이들을 특별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다음은 신뢰 안에서 더욱 친밀해지고, 또 그다음은 현실적 갈등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되는 과



호주 새순교회 청년들과 함께한 2019년 브리지캠프

정을 겪게 됩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섭리하시는 큰 은혜 안에서 학생들 자신과 이들과 동행하는 선생님들은 범상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NK국제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의 힘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NK국제학교가 우리 교회 북한선교의 미래비전과 활성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복음통일의 방법론적 선택과 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선교를 향한 실행적 계획 안에서 국제학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정립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초대하고 교육한 자유인 인재들을 위한 삶의 이정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교회가 같이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인 청년들이 자유인 1세대와 어떻게 동일시되고 또 차별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학생을 추천받고 입학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입학의 문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연속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영락교회의 전통 안에서 열정적인 지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과 희생적 봉사의 노력이 복음통일의 큰 비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활용되고, 학생

들이 수동적인 모습을 뛰어넘어서 리더십과 사명감을 갖춘 미래 일꾼으로 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과의 만남은 시간상으로나 사회 여건상으로 늘 어렵지만,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 된 자들과 사랑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늘 먹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국제학교 팀은 오늘도 불평 없이 감사로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만남**



이정만 집사
성동·광진교구
뉴코리아국제학교 교수팀장

하나님의 깊은 터치

성경 암송 60구절과 영락 대학부

카이로스의 시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자동차 출근길,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구절 암송이 나의 일상이다.

첫 암송 후, 약 10분 후에는 마지막 60번째 구절 암송까지 이어진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진다.

2016년 8월 16일 저녁 7시, 퇴근길 자동차 안에서 이 「성경암송 60구절」로 주님과의 교제가 뜨겁게 이루어졌다. 이 시간은 보잘것없는 나약한 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존귀하신 주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감격으로 채워주신 ‘주님 임재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

외워도 외워도 그렇게 외워지지 않았던, ‘한눈에 보는 주제별 성경 암송 60구절’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암송되면서, 암송하는 시간 내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배가 너무 시원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내면에서 뜨겁게 넘쳐 올라왔다.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난생처음 겪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성령님! 60구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암송했는데, 바로 그날 차 안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눈에 보는 주제별 성경 암송 60구절’은 국제적 기독교 선교단체인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30년대, 20대 시절, ‘밀스’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의 그를 향한 중보기도와 그녀로부터 받은 ‘성경 요절’ 암송으로 인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성경 암송의 유익

- 염려를 물리치도록 도와준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많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고 있다. 불안감이 몰려올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메마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

-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또다시 패배하는 경험을 겪으면 스스로 자책하며 안타까워한다. 성경 암송을 통해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과 죄에 대항에서 싸우는 유용한 성령의 검이 된다.

- 전도하는 데 확신을 준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요절 암송이 마음 판에 새겨지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삶이 바뀌는 놀라는 체험을 하게 된다.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믿지 않는 자를 돌아보게 되고, 그들에게 암송한 말씀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달하게 된다.

놀랍게도 도슨 트로트맨의 책자에서 제시된 3가지 유익은 나에게도 똑같은 체험으로 경험하게 되어 삶 속에서 평강과 기쁨,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선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주일예배만 드려왔던 삶에서, 주님을 더욱 증거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이 무엇일까 기도하게 되었고, 2019년 대학부 새신자반‘웰컴마을’ 지도위원으로 섬기게 되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공동체

대학부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과 청년층이 주축인 모임으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예배드린다. 대학부는 처음 입학한 대학 생활의 궁금증, 그리고 사회생활과 신앙생활 여정에서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멘토로서 ‘리더’ ‘엘더’라고 칭하는 선배들이 있고, 대학부 회원들 간에는 ‘벗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그리고 지도위원이 있는데, 지도위원들은 이들 리더와 엘더들의 단합, 신앙적 멘토링, 인생 상담 및 기도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리더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지도위원들과 함께 나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는 작은 지체가 되었다.

대학부 내에는 연령대별로 참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

들이 든든히 포진하고 있다.

어떤 모임보다도 젊은이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공동체이다.

처음 대학부에 들어오면 대학부 예배 후, 4주 동안 ‘웰컴마을’에서 대학부 소개, 영락교회 투어, 교제의 시간을 통해 대학부를 알아가게 되고, 이후 ‘디모데마을’로 등반해 1년 동안 친구들과 교제하며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된다. 이후 엘리야, 모세, 에스더 마을에서 지속적인 신앙의 교제를 이어 나갈 수 있다.

또 매년 수련회와 해외 비전트립 그리고 찬양대, 레마팀(미디어팀), 학생회 등 다채로운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섬김의 삶을 체험하는 기회도 공유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대학부 활동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터치이다. 훌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바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이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인가? 이 임재의 시간이 대학부 모든 지체에게 골고루 임해 주시길 주님께 기도 드린다. **만남**



고여욱 집사
성남·분당교구
대학부 웰컴마을 지도위원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3대(손주)가 드리는 기도

김하준 학생(고등부 2학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주일을 맞이해 영락교회 가족들이 예배당
과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
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와 온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
사드립니다. 대대손손 전해져 온 귀한 믿음의 유산들
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합니
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인
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4대
식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동행해 주시옵
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
모님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가정을 믿
음으로 지탱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
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님으로 대가 없이 받아온 사
랑을 갚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가족
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2대(부모)가 드리는 기도

김정훈 집사(안양·수원교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시
고,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기쁨
과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
여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긍휼함으로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육신의 질고
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아낌없이 베푸셨던 사랑을 삶
에서 몸소 실천함으로써 본을 보이셨던 것같이 저희
도 자녀를 사랑하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가족주일(5월 10일) 4부 예배 시간에 3대 기도를 통해
대표기도를 드리는 고등부 김하준 학생 가족

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며 살면서 올 바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세상에서 뒤쳐질까 불안해하여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대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돌보며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주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과 육의 성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잘 다듬어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대(조부모)가 드리는 기도

한혜경 은퇴권사(안양·수원교구)

살아계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가족주일 예배로 주의 가족이 모두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이켜 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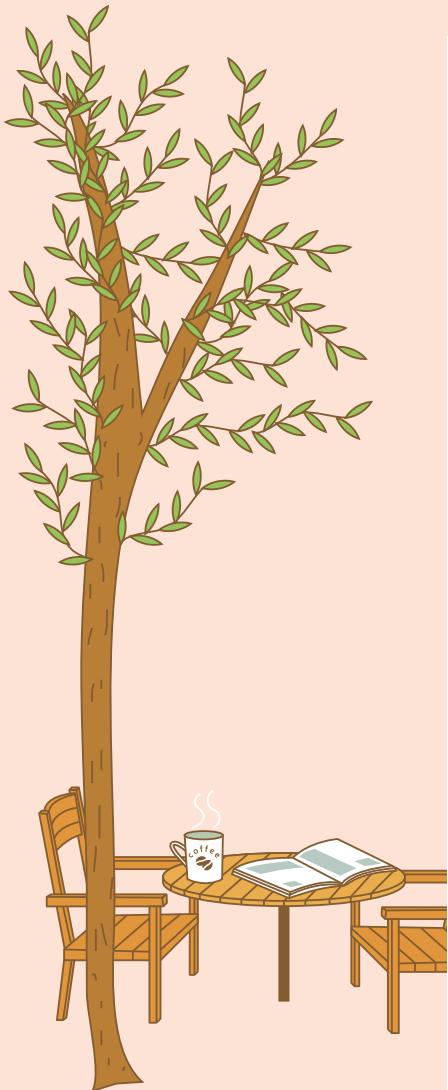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의 물질주의와 약육강식의 법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과 성공을 좋아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세상 한복판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나타내신 주님, 저희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써 그 십자가를 따르며 자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영락의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나라와 주님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셔서 그 음성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는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남**



김혜옥 권사
동대문·중랑교구
12구역장

거룩한 부담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29)

이 말씀은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의 재능대로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난 후 돌아와 결산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나는?’이라는 물음에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기까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자꾸 피해 가고 싶은 것일까? 나는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아비판을 하며 헤매던 어느 날 설교시간에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담감이라는 것은 떨쳐 버리고 내려놓고 싶지만 한 감정인데 거룩한 부담감은 웬지 나에게 도전의식을 주며 무엇을 행하게 하는 동기부여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무엇을 행하지 못하는 자책감보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일을 완성해 나가고 싶은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점점 구역장을 세우기 힘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께서 용기 내어 결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구역의 일들을 통해 느낀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예비구역장님들도 이처럼 구역 현장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은퇴 권사님 댁 막내 따님의 호스피스 병동 투병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닌 직접 체험하며 깨달아 가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막내 따님은 말기 암으로 3개월가량 입원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진통제를 맞은 지 30분도 안 되어 다시 찾아와 환자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로는 환우를 위한 기도 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진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하여 주옵소서”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을 한시도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키신 큰언니 권사님이 육체적 돌봄만이 아니라 동생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집에서 쉬시라는 가족들의 권유도 뿌리치고 딸곁에서 애통해하시는 어머니 권사님에게는 무엇보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또 한 분 재작년 12월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퇴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고 찾아뵈면, 항상 소녀같이 웃으시며 함께 앉아 지나온 어려웠던 시절을 신앙으로 극복하며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기회 될 때마다 전도하셨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모으셔서 매년 일정액의 선교헌금도 하셨고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들을 통해 거액을 교회에 현금하셨습니다. 이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정은 시어머님이 타 교회 권사님이셨고 아들내외와 손주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며느님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시어머님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으로 『만남』을 들고 방문하면 어느 때는 시어머님이 계시고 어느 때는 며느님이 계셔서 두 분과 각각 얘기 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미 예견되는 갈등들도 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한 신앙생활, 적극적인 믿음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계셨고, 며느님은 그 권면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을 죄스러워하면서도 시어머님의 헌신에 늘 감사하며 자녀들을 믿고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시어머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타 교회 권사님이신데도 우리 교회 기도원을 친정이라 부르실 만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시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외에도 구역 가정들의 생업, 건강, 가족 구원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면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구역원도 있습니다. 이 젊은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쓸 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만남**

낯선 땅을 걷는 난민들과 함께 걸으며



브니엘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드린
2019년 성탄예배

IWE 국제예배에는 난민신청자 테오 형제, 그리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동역했던 경기도 포천 브니엘교회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계속 맴돌고 있다. 특히 테오 형제와 작년에 함께 보냈던 약 3개월의 기간은 참 멀고도 가깝게 느껴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테오플러스(Theophilus)가 국제예배에 처

음 온 것은 2019년 3월 17일 넥서스(Nexus)예배였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고 덩치가 큰 흑인인 테오플러스 형제는 금방 우리 눈에 띄었다. 유쾌한 성격의 그는 밝고 다소 높은 톤의 목소리로 IWE 멤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국제예배에는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종종 오전 예배나 오후 넥서스예배에 참석해 함께 예배드린다. 여행객이거나 비즈니스 출장을 오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다. 테오 형제도 예전에 왔던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처럼 한국에 잠시 머물다 일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테오 형제가 국제예배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며 본인의 딱한 사정을 공유하면서, 3개월 전에 한국에 입국한 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난민신청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NGO 단체들의 지원으로 숙식을 간신히 해결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난민신청자 테오 형제의 딱한 사정을 접한 후 국제예배에서는 우선 소정의 교통비라도 지원하기로 했다. 난민신청자는 입국해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자리를 구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자립하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난민신청자 비자 연장 신청에 필요한 비용 10만 원을 지원했다.

테오 형제는 작년 3월 말 국제예배에서 진행한 서울숲 야외 행사에 참석했고, 4월 남산



최성은 전도사
국제예배부

야유희에도 함께했다. 그는 매주 넥서스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넥서스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난민신청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간증도 나누었다.

테오 형제에게 좀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 것은 기존에 그를 지원하던 NGO 단체들이 새로운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미 NGO의 숙박 지원 기간을 초과한 테오 형제를 시설 밖으로 내보내면서부터였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난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브니엘교회를 연결해주셔서 그곳에서 약 2주간 머물 수 있었다. 브니엘교회는 인도 출신 난민신청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신청자도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외지로 취업해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인근 지역에 취업한 분들은 브니엘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난민신청자 테오 형제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당뇨 증세가 있어 난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는 공장에 취업하는 편인데, 몸이 불편하고 나이도 적지 않은 그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테오 형제는 카타르에 가면 영어를 가르치거나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하기가 쉽다고 했다. 하지만 매끼 식사비용 조차도 걱정해야 했던 그에게 카타르까지 가는 항공료는 넘기 힘든 산과 같았다.

국제예배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테오 형제의 카타르 항공권을 준비해 주기 위해 펀드레이징을 하기로 했다. 임원들과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주일 만에 펀드레이징을 완료하고 항공권을 구매했다.

테오 형제가 카타르를 향해 떠나는 마지막 날, 브니엘교회에서 환송회 겸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인천공항으

로 가는 동안 테오 형제는 IWE 국제예배 공동체가 보여준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국제예배에서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그의 밝고 다소 높은 톤의 목소리가 다시금 살아났다.

테오 형제가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다. 그와 얼굴을 맞댄 만남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다. 카타르에 잘 도착했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테오 형제에게 넘치기를 기도했다. 이후 테오 형제는 카타르에서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IWE 온라인 예배 영상을 통해 국제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테오 형제의 이름은 IWE 국제예배 교역자들과 리더들이 주님께 중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올리는 향기로운 기도 제목이 되어 있다. 오늘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IWE 국제예배는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때 브니엘교회를 찾아가 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하고, 미리 준비한 기증 물품들을 나누었다. 그들 중 일부 구성원들은 목사님 가족과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날의 모임은 국적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IWE 국제예배는 브니엘교회를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씩 생필품 꾸러미(care package)를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다. 인도 난민들은 닭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지원 물품에 닭고기는 필수이고, 채소와 과일, 식용유, 세제, 휴지 등 생필품들을 챙겨드리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접 대면해 교제하기 어려운 시기다. 세계 각처에서 온 브니엘교회 난민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기가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만남**

마스크 너머 눈물어린 예배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된 지 11주 만에 마침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운 교회를 찾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보고 싶은 얼굴들을 영상으로만 보니 늘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은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나누며 다시 예배드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침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마스크로 인해 환한 얼굴은 다 볼 수 없었지만, 얼마나 이 자리를 찾고 싶었는지를 눈물 글썽한 눈빛으로 말하며 그 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각자 거리를 두고 떨어진 자리에서 약간의 어색함을 품고 마침내 예배를 알리는 종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김명철 장로
성동·광진교구
사랑부부장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차분한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온데다 공간을 두고 떨어져 앉은 환경이 낯선 탓에 조금 혼란스러운 듯 했습니다만, 찬양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열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던 예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성전 회복을 꿈꾸던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예배 후 모임 없이 밀봉된 간식을 나누어 주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점차 회복될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다시 함께 앉아주고 기뻐할 날을 기다리며 학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만남**

마음이 보이는 ‘인연’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서로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마음 깊은 곳의 울림과 영향력은 다르다.

2012년 6월, 음악회(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로 시작한 효성첨단소재와의 만남이 이어져 지금도 매월 영락애니아의집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 처음에는 서로가 어렵고 어색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보내는 말과 눈빛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웃는 모습도 보기 어려웠을 것이고 함께 산책하는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갔던 마음이 지금은 서로 마음의 다리가 되어 함께 웃고 즐거움도 느끼게 됐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효성첨단소재는 매년 재활기기 지원 사업으로 지정기부



금을 보내 주신다. 기부금으로 애니아의집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고, 체육대회도 꾸준히 함께해 주셔서 한 팀이 되어 달리고 응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겨라!” “이겨라!” 빨강, 파랑 풍선을 흔들며 소리 내어 함께 응원하고 달리던 모습을 생각하면 얼굴과 마음에 힘박웃음이 지어진다. 그리고 애니아의집 친구들과 효성첨단소재 종사자가 함께 만들었던 잊지 못할 장면들이 머리와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 효성첨단소재와 애니아의집은 함께 나누며 더 큰 희망과 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니 더욱 그립고 아쉬움이 크다. 애니아의집 친구들의 안부와 기관 방문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가끔 온다. 애니아의집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힘이 된다. 우리 애니아의집 친구들도 많이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로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연인처럼, 서로 힘이 되는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이 보이는 만남이 있기에 애니아의집은 언제나 화사하고 따뜻한 봄인 것 같다. 그 ‘인연’의 끈이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이어지길 소망한다. **만남**



이세경

영락애니아의집 사회재활과장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 유지하기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지금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파로 생활의 리듬이 바뀌었다.

의도치 않게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모든 정례 회의가 취소되고 친목 모임도 무산되었다. 한창 봄꽃이 만개하는 시절에 마스크를 써야 했고 사람을 경계해야 했다.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학생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했다. 회사 식당에서도 어색하게 혼밥하고 나와야 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사람이 두려워 한적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했다. 급기야는 교회의 예배가 온라인 생중계로 바뀌었고, 교회 예배당에 참석해도 외로움이 감돌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호흡기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의 건강 리듬을 잃게 했다. 확진자로 판명되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러다가 확찐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생겼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마음 편히 운동할 수가 없어서 건강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때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감사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건강과 일상적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돌이켜 보면 감사하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건강 유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다.



박일환 장로
성남·분당교구
의료선교부 부장
단국대 의대 교수

1) 일상을 새롭게 구성해 보기

갑자기 변화된 일상에서 규칙적 생활 리듬을 새롭게 구성해 보는 것이 좋다. 삶의 시간을 작은 단위(10분)로 쪼개어 의미 있는 시간을 넣어 보는 것이다. 평소 바쁜 삶으로 소홀했던 개인 기도와 경건의 시간(QT)을 아침 시간에 넣어 본다. 사회적 모임이 줄어들어 일찍 귀가해 생긴 여유로운 저녁 시간에는 성경과 좋은 책을 5~10분씩이라도 짧게 꾸준히 읽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와 묵상과 독서가 주는 영적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새롭게 구성된 일상의 반복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2) 운동 습관 유지하기

운동을 갑자기 중단하게 된 것이 당황스럽다. 그러나 평소에 하던 운동량을 고려해 하루 섭취 열량의 10% 정도(200Kcal)를 신체적 활동에 사용하면 좋다. 이 정도의 운동량은 4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정도인데, 조깅과 걷기를 혼합하면 더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헬스클럽이나 운동 모임에는 가지 못해도 창의적으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집에 있는 간단한 운동 기구들(실내 자전거, 줄넘기, 역기, 아령 등)을 이용하면 짧게라도 유산소 운동을 반복할 수 있다. 10분씩만 하더라도 하루에 3~4회 반복하면 30~40분 땀나는 운동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몇 정류장 정도의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빠르게 걷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에도 좋고, 자연에 나타나는 계절의 변화를 더 가까이 관찰할 수 있어서 좋다.

3) 식사량 조절하기

재택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에 먹는 식사량을 세끼에서 두끼로 줄여 볼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단백질이 풍부

한 음식을 잘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이른 저녁을 먹는 것이다. 평소의 바쁜 삶에서 회사 식당이나 패스트푸드로 때웠던 식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이 준비한 재료로 식성에 맞게 홈메이드 음식을 준비해 먹어 보면, 식사 속도도 늦출 수 있고 즐거움도 더하고 식사 준비를 통해 약간의 신체 활동도 하게 되어 좋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칫 열량이 많은 간식을 찾게 된다. 간식으로 어떤 음식을 찾는가에 주의해 버터가 함유된 고칼로리의 간식이나 당분이 많은 간식을 피하고, 과일이나 채소, 차 등의 음료로 대체할 수 있으면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4) 심리적 거리 좁히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인 관계가 줄어들면 공허감과 우울을 느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인간관계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필요는 없다. 평소에 존재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냈던 분들을 기억해 내고, 그분들에게 안부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드려서 마음의 선물을 보낼 수 있으면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대면은 못해도 익숙한 SNS를 활용해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과 기도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신종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릴수록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바이러스가 더 강해져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가 박해받았던 시기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일상이 그렇게 자유롭고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형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요삼 1:2) 인사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인사가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지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인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날**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게 일하신다



임종환 목사
강북·도봉교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편 23:1~3)

교회 안의 봉사부서에서 경력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이곳저곳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졌다. 시간도 더 할애해야 했다. 그러한 일상의 변화에 적응되었는지 언제부터인가 습관화된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과 부조리 속에 빠져가는 모습들, 그리고 신체가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오해하다가 정작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에게도 닥쳤다. 2018년 12월 하순경 어느 날 혈변을 보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 날 동네 의원을 찾았다. 기계장비가 부족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들었다. 직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을 덧붙여준다. 어제는 대수롭지 않았는데, 올 것이 왔다는 두려운 생각이 엄습했다. 아내에게 사실을 알렸다. 아내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지만, 안색은 하얗게 변했다.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음파, MRI 등 병원 검사가 이루어졌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곧바로 수술 날짜까지 정해졌다. 의심스럽다던 병명은 확실해졌다. 직장암. 그러나 비교적 일찍 발견되었기에 희망적이라 했다.



‘희망적’이라는 진단은 가족의 기쁨이 되었다. 어느 날 가족예배 시간에 아내는 하나님께서 임종환 집사를 앞으로 더 사용할 필요가 있으신가 보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날 아내의 표정은 평상시보다 밝았다. 그러나 크건 작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밖에. 직장암 1차 수술 후에 장루를 부착했다. 불편하고 난감하고 민망했다. 배 앞의 뚝주머니라니! 35년여 결혼생활로 이제 그대와 나 사이에 감출 것이 있나 싶었던 아내에게도 민망한 마음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일하신다. 배에 배변 주머니를 달고 일상을 견뎌야 하기에 외출마저 버거웠던 나에게, 하나님은 봉사의 문을 열어 주셨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열어 주신 그 문은 내가 닫아도 되리라 생각했다. 뭐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게다. 환자였으니까. 그러나 성령님 또한 이상하신 분이었다. 그 봉사의 자리로 거부감 없이 가게 하셨다.

아프기 전, 2018년 하기선교봉사에 자의 반 타의 반 다녀온 적이 있었다. 나는 마을에 평상을 제작해주었다. 교회 인근에 사는 분의 집의 위생이 열악해서 도배가 필요하다기에 부족한 실력이지만 보탰다.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수술하고 회복기에 들어서니 다시 하기선교봉사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던 집사는 가지 못하고 환자인 나와 같은 교구의 어느 집사가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 자신의 불편한 몸을 잊게 하시고, 미자립 농촌 교회의 열악한 현실을 보게 하셨다. 마을 두 교회의 전기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기공사는 내 생업이라서 어려운 것 없

이 임할 수 있었다. 불필요한 전선들을 정리하고 용량과 규격에 맞게 배선하는 등 3박 4일간의 봉사 시간을 함께 했다.

2019년 하기선교봉사를 다녀온 후, 10월에 직장 복원 수술을 받았다. 복원 수술 후 환자 대부분은 배변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나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하게 일하시는 분이 맞다. 어둡고 차가웠던 마음에 불씨가 당겨졌고 따뜻해졌다. 마음에 온기가 돌면서 회복되는가 싶더니 몸도 곧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변한 것은 없었다. 병은 치료 중이고, 불편함은 여전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편과 아픔은 여전한데 이겨낼 힘이 더 강해졌다는 표현이 옳다. 그래서 힘들지 않은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녀석 다 나았나 보네’라고 오해하신 것 같다. 덜컥 ‘안수집사’ 직분을 더하셨다. 오래 몸담았던 자원봉사부로 다시 가게 되었다. 이번에는 피택봉사자 신분이 되었다.

직장암 선고를 받았을 당시, 내가 기도한 것보다 주위 성도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주신 것을 안다. 교회의 많은 지인은 나 자신보다 더 염려해주었고 많은 기도를 해주었다. 그 기도에 힘입어 힘에 겨웠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많은 날, 씩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남편을 위해 힘든 병원 수발과 병간호를 묵묵히 감당해 준 아내에게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아내 얼굴을 앞에 두고는 입을 열지 못하는 한국 남자이니 그간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것 또한 이 지면을 통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네 삶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마 6:30) 일지언정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에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만남

영락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예천여고 2학년 시절 왕따가 된 후 힘든 학교생활을 버티기 위해 마태복음을 처음 읽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하고 철없는 믿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을 붙잡고 전학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9개월 후 기적같이 대구의 기독교 학교인 신명여자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 가정의 가훈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급훈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TV 방송에서 젊은이들과

대화하시는 한경직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영락교회를 처음 알게 되면서 이 교회를 꼭 다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저는 단순히 영락교회에 다니고 싶은 갈망에 서울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

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영락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고, 항상 사랑에 굽주리며 살았던 제게 영락교회는 한없이 넓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케 했으며,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이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요철야예배를 다니며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경상북도 풍기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교사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 그리고 복음의 사명감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영락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리워 주말에는 4시간씩 기차 타고 영락교회에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방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영락교회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기회를 갈망하며 수지 않고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인천으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영락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는 친정에 온 것처럼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정분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정년퇴직 후 미국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딸의 집안일과 육아를 돋기 위해 미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영락교회와 교우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험을 통해 제 기도의 폭을 넓히시고 세계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워싱턴 한미 국가조찬기도회에 두 번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출신 인종들이 한미 양국의 지도자, 한반도 평화, 북한 및 박해받는 교인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니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의 평안과 필요, 내 민족에게만 관심을 가졌었던 이기적인 기도 생활을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티모어에서 한국 복음의 시초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어둡던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미국 최초 감리교회, 러블리 레인 감리교회와 한국의 깊은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1883년에 고종이 보낸 보빙사절단(민영익 포함 11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당시 이 교회 담임목사인 가우처를 만났는데,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감리교 본부에 연락해서 감리교 최초 한국 선교사인 아펜젤러 파송을 주선했을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난한 조선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이 교회로 인해 수많은 세월이 흘러 저와 제 가족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교회 앞에 서 있으니 주님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를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사랑하는 영락교회에서 많은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 미국 땅에서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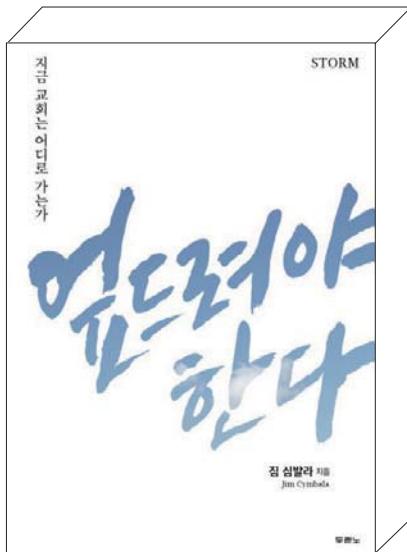
볼티모어에 있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기념비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른쪽 두번째가 필자)

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도록 항상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는 영락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영락교회에서 발간된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도와 전도집’을 통해 여기서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만 3살이 되는 손자를 돌보며 새벽과 밤으로 영락교회 실시간 방송과 녹화된 수요·금요·찬양·주일예배를 시청하며 예배에 동참합니다. 손자가 낮잠 잘 때면 영락교회 기도책과 김영철 구역장님께서 구역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119 대작전 말씀 묵상 동영상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가정예배 책자를 한국으로부터 챙겨 받아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비록 거리로는 영락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과 볼티모어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오늘도 저는 저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만날**

엎드려야 한다

-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



짐 심발라(Jim Cymbala) 지음/ 정성록 옮김 / 두란노 펴냄 / 330쪽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은 겉표지에 전부 잘 표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뉴욕 브루클린 태버내를 교회에서 목회하는 짐 심발라(Jim Cymbala) 목사님의 저서로, 그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상과 직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영적 통찰력을 주고 있는 책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거대한 물질문명, 교회를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느 때보다 영적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교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목에서 보여

주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 기도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다시금 교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을 회복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앞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책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거센 파도로 비유하면서 이 파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센 파도와 대향해서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덮쳐오는 파도에 올라타야 더욱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덮쳐오는 높은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며,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바람을 탈 때 험한 세파 속에서도 더욱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Part 1. “죄송합니다, 예수님”

1.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야”
2.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3. 포기하지도, 지름길을 찾지도 말라

Part 2. 엎드려야 한다, 엎드려야 산다

1. 엎드리면 사랑하게 된다
2. 엎드리면 성령에 불들리게 된다
3. 엎드리면 ‘처음 복음’을 끝까지 지키게 된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영이 ‘함께’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과 복을 갈망하지 않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너무 많다. 크리스천들도 대부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승리의 삶을 살 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도 없다. –『엎드려야 한다』중에서



Part 3. ‘복음의 폭풍’으로 ‘위기의 광풍’을 뚫고 나가라

1. 서로 팔짱을 끼고 함께 싸우라
2. ‘새 언약’을 타협하지 말라

이 책은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현실과 마주한 상황 속에서 현대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강한 영적 통찰력을 주는 책이다. 동시에, 오늘날 거센 세파에 직면한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앙적 도전을 주는 책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 물질문명 및 세속주의의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혼란한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책인 동시에 영락의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강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앙의 도전과 유익을 주는 책이기에 영락의 성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다. **만날**



김태균 목사
서초교구
경조부



뮤지컬로 문화선교합니다



문화선교부의 공연사역

영락교회는 1998년 선교부 안에 문화선교팀을 만들어 뮤지컬팀, <위트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위트니스> 뮤지컬팀에서는 성금요일과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교회의 중요한 절기와 선교대회 등 주요행사에서 뮤지컬 공연예배를 통해 생동감 있는 예배를 추구해 왔습니다.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리마대 요셉’ ‘요덕 스토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두 형제’ ‘자가의 길’ 등을 예배와 결

합해 공연했고, 크리스마스에 ‘별이의 별 이야기’ 등을 예배 무대에 올렸다. 10월 선교주간에는 ‘바울’ ‘아름다운 초대’ ‘연탄길’ ‘큰 기쁨으로’ ‘평양 1866’ 등을 공연했습니다.

공연 작품은 절기 예배의 메시지와 결합한 콘텐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대본과 작곡, 편곡 등을 창작했으며, 배우들이 3~5개월간 연습했습니다. 공연에 필요한 무대 디자인과 의상, 소품, 분장 등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외부 행사로 보훈병원 크리스마스 공연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연도 했습니다.

예배자로 훈련

일반 공연은 관객을 위함이지만, 예배 안의 공연은 성도들을 위한 공연이기 때문에, 작가, 작곡가, 연출, 배우, 스태프가 예배를 준비하는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연 참여자들은 20~40대 초반의 청년들로, 영락교회 청년들과 외부 교인 중 직업 배우로 구성되며, 때로는 불신자들도 참여하는데, 함께하는 경건회를 통해 감동되어 영락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대본의 개발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재조명하거나 토의를 거쳐 소재를 찾습니다. 대본 완성에만 2~3개월이 걸립니다. 그 후,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 작곡가와 편곡자가 작업한 곡을 붙입니다. 대본과 곡이 완성되면 배우들이 연습을 시작합니다. 연습 초기에는 대부분 필요한 배우가 부족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나, 몇 주 후면 주님께서 필요한 배우들을 보내 채워주십니다.

연습 전에 30~40분 정도 경건의 시간에 찬양과 말씀 묵상과 나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연습 초반에는 매주 목요일 밤,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연기, 노래, 안무를 연습하기도 빠듯해서, 경건의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회의 은혜와 감동으로, 주 1회에서 주 5회 일정의 힘든 연습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건의 시간에 배우와 스태프는 마음의 상처, 실패, 슬픔, 기쁨, 회복 등을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나눔을 갖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재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러서 세워주시고 인정받는 존재로 여겨주시며 함께 이루어감을 알게 된다는 것은 큰 기쁨이 되고 충만케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다치기도 하고, 일이 생겨서 연습에 충실히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

기도 하지만, 경건회가 쌓일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씩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든 없든, 맡은 배역이나 무대, 음향, 조명, 의상, 소품, 분장 등 역할에 따라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뮤지컬 공연을 위한 모임이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준비와 훈련이 되고 나면, 비로소 예배공연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 말씀 봉독과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바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공연에 임하는 참여자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함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배우와 스태프 모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어도,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는 긴장되고 떨립니다. 저마다 주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현장 공연은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항상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대사나 가사가 틀리는 실수를 하거나, 조명이나 음향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은혜를 받았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습 시작부터 공연까지 우리의 수고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앞으로 나갈 방향

지난 22년 동안 예배 안에서 공연이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이 부족한 공연이지만 사역의 의미로 공연이 이루어졌으니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예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생각



2019 문화선교축제로 공연한 창작 뮤지컬 '평양 1866'

합니다.

첫째, 창작자 발굴입니다. 메시지가 담긴 대본과 음악, 안무 등 각 파트에 전문적 인재들을 육성해 다양한 문화예술에 복음을 담아 누구에게나 쉽고 흥미롭게 전할 수 있다면 전도의 도구로써 주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성경적 콘텐츠를 개발해 공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갖춘 작품이 생존해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배공연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배우 발굴입니다. 영락교회가 1998년 열린 예배를 뮤지컬 공연으로 올린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요즈음 뮤지컬은 종합예술로써 공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입니다. 대사와 노래, 춤 그리고 무대의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제작비가 많이 들고 배우와 스태프가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봉사와 헌신의 정신에만 호소해야 할지, 사례비를 지급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 참여했던 사람들은 계속하기 원하지만, 일터에 가야 하므로 공연에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셋째, 공연장소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준비하고도 공연장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1~2회 공연만하게 되고, 배우들도 여러 횟수를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공연기획 단계에서부터 일정과 장소를 계획하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영락의 각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출발했고 언제나 문제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연 후 막이 내리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렸으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순수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 예배자로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고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만남**



유혜정 권사
성남·분당교구
문화선교부 예술감독

자랄지라



성경을 정독하다 보니 [아가] 즉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말씀에 이끌리어 골짜기와 백합화를 탐구하게 되었다.

백합화는 일반적으로 힘, 아름다움 그리고 순수함을 상징한다. 성경사전에 의하면 골짜기의 백합화는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따라서 골짜기의 백합화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다. 우선 골짜기라는 명제는 나에게 다양하게 다가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씀이 떠올랐다. 또한 어린 시절 동요 중에 “산골짜기 다람쥐 애기 다람쥐”라는 가사를 흥얼거리며 작업에 들어가곤 했다. 골짜기의 백합화를 보는 시각은 어둡고 혐난한 세계에 오신 정결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골짜기의 백합화는 11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랄지라’는 그중 1개의 작품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5).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올라가자는 의미다. 골짜기의 백합화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각도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영원 무궁히 드린다. **만남**

서동희 은퇴권사_성동·광진교구

6월 목회력

5일(금)	연합권찰공부
6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7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4일(주일)	제직회
17일(수)~21일(주일)	북한선교대회
21일(주일)	북한선교주일
22일(월)~27일(토)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26일(금)	심방준비회 및 금요권찰공부 상반기 종강
28일(주일)	교사부흥회, 새가족환영회, 사회봉사주일

※ 6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news letter

제198회 서울노회, 우리 교회에서 열려

제198회 서울노회가 지난 5월 21일(목) 오전 9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서울노회 소속 6개 시찰의 총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노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간략하게 진행됐다. 서울노회장 권위영 목사(서울숲교회) 인도로 드려진 개회예배에서는 예장 부총회장 김순미 장로의 기도와 권위영 목사의 '한 사람을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가 이어졌다. 권 목사는 "모세가 믿음의 후계자를 위해 기도하며 여호수아를 세운 것 같이,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사람을 잘 세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자"고 권면했다.

김운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2부 회무처리에선 규칙부를 비롯한 부서별 보고가 이어졌고 중요 현의 안건(작년 104회 총회 시 가결한 명성교회건에 대한 철회 요청)에 대



한 격론 끝에 찬반 투표 및 총회 총대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한편 오후 2시에는 목사 임직식이 열려 우리 교회 신대군 전도사(영락수련원)를 비롯한 1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날 임직식에선 이철신 원로목사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현정임 장로,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42대 회장 취임



현정임 장로가 지난 4월 28일(화)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96회기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1928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전신인 조선예수교장로회 부인전도회로 출발한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이하 여전도회연합회)는 서울노회 산하 80여 지교회 소속 8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 중에 있으며 63명의 실행위원과 특수선교·교정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재단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출범 초기였던 1931년 첫 해외선교사 파송 이래 국내·외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는 여전도회연합회는 최근에는 '아시아 미션 7145 프로젝트'를 세워 아시아 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교회에선 조의도 권사(28대), 김안순 권사(32대), 백혜자 장로(36대), 김순미 장로(38대)가 역대 회장을 역임했다. 현정임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선교사역을 위해 순종하며 섬기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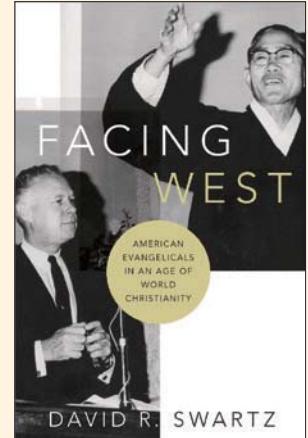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한경직 목사 월드비전 토대 마련한 설립자로 재조명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잡지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월드비전의 잊혀진 설립자'란 제목의 표지 기사를 지난 4월 16일(현지 시간) 홈페이지(<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0/april>)에 공개했으며 4월호 커버스토리로 실었다(사진). 한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이 기사를 5월호 커버스토리로 게재했다.

데이비드 스와츠 미국 애즈베리대 역사학과 부교수가 기고한 이 기사의 부제는 '한국인 목사가 세계 최대 구호기구 중 한 곳의 탄생을 도왔다. 그는 왜 역사에서 사라졌는가'다. 스와츠 교수가 2020년 출간한 책 『Facing West : American Evangelicals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내용 가운데 한경직 목사에 관한 내용이 챕터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사진). 이번 기사는 책 내용과 관련이 있다.



기사에는 한경직 목사의 성장배경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 미국 유학 생활, 영락교회 설립 및 한국전쟁 전후 사회봉사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한국전쟁 전 월드비전의 설립자 밥 피어스 목사와의 만남과 한국전쟁 후 복구를 위해 애쓴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피어스 목사는 모금 활동, 한경직 목사는 구호 활동에 힘을 쏟았으며 두 사람의 협력으로 월드비전은 이후 세계적 국제구호기구로 성장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가 월드비전 설립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그의 업적은 잊혀갔다. 기사에서 스와츠 교수는 "서구 복음주의권의 '승리주의적 서술'에 의해 한경직의 유산이 압도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스마트한 e세상, 웹진『만남』오픈

인터넷 브라우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 가능



홍보출판부에서 발행하는 월간『만남』이 기존 종이책 발행과 더불어 웹진 형태로도 운영됩니다. 그동안 교회 홈페이지에서 e-북 형태로 볼 수 있었던 'PDF 보기'와 비교했을 때 사용자의 편의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처럼 단어 검색 기능을 탑재하여 원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로 웹진『만남』 접속하기



www.youngnakmn.net

웹진『만남』은 교회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도메인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구글 크롬 브라우저 등에 접속해 주소창에 www.youngnakmn.net을 입력하면 됩니다. 편의를 위해 com / org / co.kr / or.kr / kr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옆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기기로 웹진『만남』 앱 다운받기



삼성이나 L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 들어가서 앱 검색창에 '영락만남'을 입력한 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패드, 태블릿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6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주보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로 웹진『만남』 앱 다운받기



아직은 개발 및 심사 대기 중입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애플사 특유의 심사 기간으로 인해 6~7월 즈음을 오픈 예정일로 보고 있으나, 아이폰의 경우는 예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주보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아이튠즈(iTunes) 앱에 접속하고 앱 검색창에 '영락만남'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웹진『만남』은 2018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남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원가입 및 긍정적 활동에 대한 포인트 획득, 레벨 등급과 승급, UCC 기반의 다양한 글과 사진, 동영상 업로드 및 피드백(좋아요, 구독, 댓글) 기능 등 웹 커뮤니티에 필요한 기능들 중 일부는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한적 예산운용과 IT분야 전문 봉사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웹 커뮤니티로서의 전 기능들은 아쉽게도 다 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뜻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동참하여 미디어 사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길 희망합니다.

편집장 레터

마당 여기저기에 들꽃들이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그 중 유독 노란 민들레꽃이 눈에 띕니다. 민들레는 흔히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고, 뿌리가 깊어 밟히고 밟혀도 금빛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를 보고 굳은 결심을 한 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육종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장춘 박사입니다.

여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동경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날마다 일본 아이들로부터 “조센징”이라는 욕을 들으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롱과 놀림은 오히려 그에게 격려의 채찍이 되었습니다. 우장춘 소년은 책상머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붙여놓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밟으면서도 피어나는 길가의 민들레처럼”. 그는 ‘종의 합성이론’이라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기초 원리를 최초로 규명해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육종[育種]에 관한 놀랄 만한 업적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주어진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해서 피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지 않고 패기와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근

대사의 슬픈 역사적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3~14)

6월의 『만남』은 우리에게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히 변화와 거듭남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 4, 5월 『만남』과 마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와 새로움에 적응할 수 있는 축복을 기대해 봅니다.

편집장 이동훈

2020년 6월호 통권 557호

발행 2020. 6.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혁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다른 그림 찾기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숫자 퀴즈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혹은 상식의 숫자를 다 더한 합계를 맞추시면 됩니다. 문제의 답을 네모 칸에 다 적은 후 그 수를 합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며칠 동안 무교병을 먹을까요? (신명기 16:4)

--

일

- 이스라엘의 지파는 모두 몇 지파였을까요? (창 49:28)

지파

- 노아 시대에 비는 며칠 동안 내렸을까요? (창 7:24)

일

-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른 해는?

년

- 다윗은 이새의 몇째 아들일까요? (대상 2:15)

--

번째

-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출 7:7)

세

-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년은 1년이 며칠일까요?

일

-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 때까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막 14:30)

--

번

-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COVID..

명

-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은 남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막 6:44)

- 4월 15일에 치뤄진 선거는 몇 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을까요?

대

- 위의 수를 다 합한 숫자는 몇일까요? ^~

영락화랑

자랄지라



서동희, 백자/도기, 51×21×33cm, 2020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